

# 조달청, 혁신제품으로 기후위기 해결 지원

## 기후테크 혁신제품 공공확산

- 조달청(청장 백승보)은 22일 대전에서 (주)아라온을 방문하여 기후테크 혁신제품의 공공 확산 방안을 논의함.
- (주)아라온은 전자식 매연 및 미세먼지 저감장치를 생산하는 기업으로, 자동차의 전자기적 노이즈를 필터링하여 연소조건을 최적화하는 혁신제품을 개발.

## 혁신제품의 성과

- 해당 혁신제품은 조달청을 통해 국내 시범구매와 해외 실증 사업을 성공적으로 진행.
- 지난해 12월, **350만 달러** 규모의 인도 수출 계약 체결.

## 혁신제품 공공구매 제도

- 혁신제품 공공구매 제도는 공공이 혁신제품의 선도적인 구매자가 되어 기술혁신과 초기 시장을 지원.
- 2024년도 혁신제품 공공구매 규모는 **1조 원**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.

## 지원 계획

- 강희훈 신성장조달기획관은 “혁신조달은 기업이 초기 판로 걱정 없이 기술 개발을 지원하는 역할”이라고 강조.
- AI, 로봇 등 신산업 분야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다양한 혁신제품 발굴 계획.
- 2028년까지 혁신제품 공공구매 규모를 **2조 원** 이상으로 확대할 계획.

문의: 신성장조달총괄과 배철규 사무관 (042-724-6316)